

고용노동부,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논의 위한 TF 회의 개최

- 국민·실무공직자 제안과 전문가 논의를 바탕으로 현장 체감형 과제 검토
- 불법·편법 관행과 제도 취지 훼손 사례와 개선 방안 집중 논의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5월 7일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 추진 TF*」 회의를 개최했다.

- * (민간위원) 김종진 일하는시민연구소장, 남재욱 한국교원대 교수, 유성규 성공회대 겸임교수, 이향수 건국대 교수,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 (정부위원) 고용노동부 장관(TF 위원장)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이번 회의는 국민주권정부가 추진 중인 국가정상화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고용노동분야에 남아있는 불법·편법행위, 비정상적인 관행 등을 개선하여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이번에 개최된 TF 회의에서는 국민제안 과제, 실무공직자 브레인스토밍, 집단토론회 등을 통해 발굴된 정상화 과제(안)에 대해 집중 논의하였다.

특히, 가짜 3.3 계약, 포괄임금 남용과 임금체불, 산업안전 사각지대, 거짓 구인광고 등 노동시장에 남아 있는 왜곡된 구조를 개선하고 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한 과제들이 다루어졌다. 아울러 각종 정부지원 사업이 본래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도 함께 살펴보았다.

이번 TF 회의에서 논의된 정상화 과제(안)은 이후 국무조정실 등 관계 부처 협의를 거쳐 5월 중 최종 과제로 확정될 예정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종 과제가 선정되기 전이라도 관계기관 협업, 선제적 제도개선, 법 개정 추진 등 가능한 수단을 동원하여 하나씩 정상화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행복해야 하는 노동자의 일터에서 편법과 불합리한 관행으로 불행을 겪는 일은 없어야 할 것”이라며 “노동부가 노동부답게 정상화되어 가는 과정과 실질적 변화를 국민들께서 온전히 체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강조하였다.

붙임 1. 고용노동분야 정상화 TF 회의 개요

2. 정상화TF 위원장(고용노동부 장관) 인사말씀

담당 부서	정책기획관 혁신행정담당관	책임자	과 장	윤병민	044-202-7047
		담당자	사무관	정인아	044-202-7055
		담당자	주무관	김선영	044-202-7053



- ◆ 비정상적인 관행과 제도, 고착화된 불법·편법 행위 등을 개선하고 ‘기본이 바로 선 나라’를 구현하기 위해, 고용노동분야 정상화 과제 발굴·개선 추진 중
- ◆ 그간 국민 제안과 자체 발굴 과제를 대상으로 내부 브레인스토밍 및 분야별 전문가 집단토론회를 거쳐 과제(안) 선별
- ⇒ 오늘 TF 회의를 통해 ‘고용노동분야 정상화 과제’ 집중 논의

1 회의 개요

- (일시) '26.5.7.(목) 08시 30분 ~ 09시 30분
- (장소) 혁신공간 1009호(여의도 금산빌딩 10층)
- (참석) 장관(주재)
 - (민간위원) 정흥준, 남재욱, 김종진, 유성규, 이향수
 - (정부위원) 고용정책실장, 노동정책실장, 산업안전보건정책실장
- (내용) 고용노동분야 정상화 과제(안) 논의 및 선정

2 회의 순서

시 간		주요 내용	비 고
08:30~08:32	2'	개회 및 참석자 소개	혁신행정담당관
08:32~08:35	3'	인사 말씀	장 관
08:35~09:25	50'	정상화 과제(안) 논의 ① 추진 경과 및 향후 계획(안) ② 분야별 정상화 과제(안)	참석자 전원
09:25~09:30	5'	마무리 말씀	장 관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장관입니다.

이른 시간임에도 「고용노동분야 정상화 TF」 회의에
참석해 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고용노동 행정은 국민의 삶과 맞닿아 있습니다.

튼튼한 일자리 안전망이자

정당한 보상의 버팀목이며

안전한 귀가를 보장하는 국가의 약속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어느 것보다도

기본이 바로 서고 규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우리는 노동현장 곳곳에서
규칙이 무시되는 모습을 목격합니다.

일터에서의 안전 격차,

구직자를 기만하는 거짓 구인광고,

정당한 보상을 가로막는 임금체불,

그리고 국민의 삶을 위한 각종 정부지원 사업을

편법적으로 활용하는 것 등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겉보기에는 달라 보이지만 본질은 하나입니다.
규칙이 홀대받고
불합리한 관행이 대신 자리 잡은 탓입니다.

무너진 기본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규칙을 지키면 손해보는 비정상적 시대를 끝내야 합니다.

국민 여러분, 실무 공직자들께서 주신
제안들을 토대로 브레인스토밍과 치열한 토론을 거쳐
고용노동 분야 정상화 과제(안)을 발굴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고용노동분야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비정상을 정상화하기 위한 방안을
꼼꼼하게 찾아보고자 합니다.

바로 조치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게 처리하겠습니다.
힘든 길이라도 돌아가지 않겠습니다.

고용노동 분야가 작은 것에서부터
정상화되어 가고 있음을
국민들께서 온전히 체감하실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